

일본, PP 시장구조 개편 “본격화”

JPC-Chisso 합병 109만톤으로 1위 ... 경쟁력 확보에 S&B 실행

Japan Polychem과 Chisso의 PP(Polypropylene) 통합기업이 2002년 가을에 영업을 개시해 일본 PP 시장구조 개편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통합기업의 출자비율은 Japan Polychem 65%, Chisso 35%로 PP 생산능력이 약 109만톤으로 2001년 4월 영업을 개시한 Mitsui Chemicals과 Sumitomo Chemical의 Polyolefin 통합기업 Mitsui-Sumitomo Polyolefins의 생산능력 약 95만톤을 제치고 일본 1위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PP 생산그룹은 4사 체제로 개편되게 됐다.

Mitsubishi Chemical도 Tonen Chemical의 합작기업인 Japan Polychem과 2001년 6월 PE(Polyethylene) 사업은 Showa Denko와 Japan Petrochemical의 합작기업 Japan Polyolefin과, PP 사업은 Chisso와 각각 제조·판매·연구기능을 통합해 신규회사를 설립키로 기본적으로 합의한 상태이다.

그러는 사이 JPC와 Chisso가 PP 사업을 통합해 2002년 10월 영업을 개시한 것이다.

일본 석유화학기업들은 폴리올레핀 등 범용수지 국내수요가 성숙되고 판매가격이 하락하는 등 고전을 계속하고 있다.

게다가 중동이나 중국 등에서 대형 플랜트 건설을 계속하고, 2004년까지 범용수지 수입관세가 인하되는 등 사업환경이 한층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기업들은 사업통합에 따른 비용절감을 서두르고 있다.

PP는 2002년 4월 Mitsui-Sumitomo Polyolefins이 영업을 개시해 6사에서 5사로 재편됐고, JPC와 Chisso가 통합한 10월에는 4사 체제로 재편됐다.

일본기업들은 사업통합에 따라 인원절감과 물류체제 합리화 등을 통한 비용절감을 추진하는 한편 경쟁력이 낮은 소규모 플랜트를 폐쇄하고 대형 신규 플랜트를 건설하는 Scrap % Build(S&B)를 추진하고 있다.

삿코우 Petrochemical과 Tokuyama의 PP 합병기업인 Tokuyama Polypro는 PP 20만톤 플랜트를 2003년 1/4분기 완공 예정으로 건설하는 것과 동시에 Tokuyama가 기존의 14만톤 플랜트를 폐쇄할 예정이다.

Mitsui Chemicals도 2003년 오사카 소재 PP 30만톤 플랜트를 완공하면 비슷한 생산능력을 가진 기존 플랜트는 폐쇄할 예정이다.

JPC와 Chisso의 PP 통합기업도 앞으로 S&B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7/03>